

한가위 다가오는데...전남 농가 근심만 '한가득'

나주배 울초 저온현상에 가을장마로 병충해 잇따르고 소비마저 둔화 장성 사과 탄저병 등 생산량 60% 감소...고흥 벼 발병에 농가 한숨만

"더도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데... 작황도, 기후도 안좋아 풍성한 한가위는 어려워요. 병충해에 판매도, 가격도 시원찮은데 태풍까지 온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나주에서 1만㎡(3000평) 규모의 배농사를 짓는 이일수씨는 배를 감싼 종이를 제거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이씨가 기대했던 만큼 열매가 크지 않아서다. 이씨가 열어본 배 10개 중 6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품'이었다. 지난 4월께 꽃이 피야 할 시기 저온현상으로 열매에 흑성병이 퍼진데다, 가을장마로 땅도 습해 열매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탓이었다. 추석 대목인 요즘 선물용 나주배 수확에 정신했던데도, 상품성이 없는 배가 많아 속상하기만 하다.

이씨는 "6개월 간 곁들여 키웠는데 상당수가 상품성이 좋지 않으니 기분이 좋지 않다.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열매가 나와줘야 하는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풍성한 한가위를 앞둔 농민들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다. 울 초 저온 현상과 길어진 가을장마로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에 병충해 피해가 잇따르는데다, 소비 둔화로 판매 가격도 기대보다 못해서다. 한창 수확을 앞둔 시기, 올라오는 태풍 소식도 불안함을 키우고 있다.

14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나주배의 예상 생산량은 4만 2000t. 하지만 전체 생산량의 10%는 병해충에 걸려 상품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의 경우 표면에 검은색 얼룩무늬가 생기는 병충해인 흑성병에 걸린 게 적지 않다. 심하면 열매가 썩거나 잎이 지는데 보통 착과(着果)가 되는 4월 말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한다.

올해는 4월께 저온현상으로 흑성병이 유행하면서 상당수 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심한 곳은 전체 열매의 15%가 흑성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측은 파악하고 있다.

가을장마도 농가 속을 태웠다.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는 필요한 작물의 성장을 더디게 했다. 땅이 물기를 가득 머금으면서 영양분이 열매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는 게 기술센터측 설명이다. 이씨는 "얼굴(배 표면)에 이리저리 상처가 난 것들 뿐"이라며 "작황도 좋지 않는데 가격도 예년만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나주배는 7.5kg 기준 3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4~5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이씨 설명이다.

나주배만 그런 게 아니다. 사과 재배농가도 편치 않다. 전남의 사과 주산지인 장성 지역 재배 농가는 늦여름과 추석을 앞두고 출하하는 흉노 사과에 발생한 탄저병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다.

흉노사과는 장성지역 사과 전체 생산량 2600t 중 130t 을 차지한다. 생산량이 많은 품종은 아니지만 추석 전후로 수확, 판매하는데 10% 가량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손해를 볼 처지다.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이기만씨는 "올해도 탄저병으로 피해를 입은 흉노사과 재배 농가들이 생겼다"면서 "봄철 서리 피해까지 일어 장성지역 전체 사과 생산량도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나마 농민들은 명절을 앞둔 사과값 하락세가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부 벼재배 농민들도 병충해를 피해가지 못했다. 고흥은 전남에서 벼 재배 면적이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올해 세균성 배알마름병과 헤시노니병, 목도열병이 나돌면서 피해를 입었다.

배알마름병은 벼 이삭에 벼가 제대로 차지 않은 병충해로, 벼 잎과 줄기에 반점이 생긴다. 벼 생장에 큰 영향을 주는 헤시노니병과 함께 치명적인 병충해다. 여기에 올해 길게 이어진 가을장마, 수확을 앞두고 지속된 흐린 날씨 등으로 제대로 양분을 얻지 못한 벼 이삭의 목이 꺾이는 목도열병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농업기술원측 설명이다.

고흥군 파지면에서 20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중권(60)씨는 "농사는 날씨가 중요한데, 8월부터 시작된 가을장마로 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15일부터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14호) 찬투 북상 소식도 불안하다. 김씨는 "오는 10일까지 햇빛이 잘 들어야 수확에 도움이 되는데 이 시기에 태풍이 온다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면서 "별달았이 지나가지만 바람"이라고 걱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백신 접종 행렬 14일 오후 광주 북구 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동산 투기 수사' 목포시의원 숨진 채 발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목포시 달동 고하도의 한 숙박업소 인근 공터에서 숨진 채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A 의원은 전남 숙박업소에 투숙, 다음날 귀가하

겠다고 가족들에게 연락한 뒤 소식이 끊기면서 가족들이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토지를 일부 사들인 혐의(금융실명제법)로 B 전 의원과 함께 전남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목포시의회 A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A 의원은 또 지난달 말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A 의원 옷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어용노조 만들어 노조 방해 회사 관계자들 유죄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제지회사(광주일보 2월23일 6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사측이 노조의 단체노동조건을 악화하고 근로자의 지위향상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하면서 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제기된다. 다만, 일부 회사 임직원

에 대해 검찰의 애초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상무이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장성공장 공무원장 B(55)씨와 관리팀장 C(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도 각각 18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장성공장 팀장급 직원 D·E씨와 대리급 직원 F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협조적 노조를 결성키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명절 앞두고 가족 중요성 되새기라는 판결 2제

노부모 협박·행패 아들 집유 선고 선처

부모에 용서 구하고 대화하길

"자식 때문이라도 부모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 지 아시겠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새겨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추석을 맞아 가족간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선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준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70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협박하고 물건을 던져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식 때문에 선처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부모와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제출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주는 대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을 맞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화하면서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을 갖도록 재판부가 선처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대신 벌금형

"부양가족 생각하며 살기를"

"집이 무거울 순 있지만 집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린 벌금형 2000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액이다. 도로교통법(148조 2)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B씨는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km를 음주운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6년 전에는 음주운전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윤 판사는 "벌금 최고액을 선고한 의미를 알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가족 간 서로 격려하고 염려도 해주는 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처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